

第 51 回 1 級 : 聞きとり・書きとり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7 괄호 부분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그렇게 ①(들락날락해 놓고) 현관문 비밀번호를 ②(까먹었다니 말이 돼?)

→あんなに①(出たり入ったりしておいて)、玄関の暗証番号を②(忘れただなんて話にならないよ。)

2) ①(알음알음 입소문 타고) 장사가 잘되나 싶었는데 ②(어쩌다 빚더미에 올라 앉았대요?)

→①(口コミで噂が広まって)、商売がうまくいっている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、②(どうして借金まみれ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って?)

3) 심지가 곧고 ①(나름 굵대도 있어서) 내가 ②(사윗감으로 점찍어 뒀지.)

→心根がまっすぐで①(それなりに気骨もあるので)、私が②(お嬢さん候補として目を付けておいたの。)

4) ①(구슬려도 보고 음박도 질러 보았지만) 그들은 ②(막무가내였다.)

→①(おだててみたり叱ってみたりしたが)、彼らは②(まったく動じなかった。)

8 괄호 부분을 한글로 받아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막말도 ①(서슴지 않는)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살을 ②(찌푸리게) 했다.

2) ①(엉겁결에) 수락해 버렸는데 그때 증빙 자료들을 ②(살살이) 훑어볼 걸 그랬어.

3) 늘 ①(깁듯하게) 예의를 갖추고 ②(의젓한) 모습이 참 보기 좋다.

4) 머리가 ①(희끗희끗해지신) 어머니의 닳고 닳아 ②(몽툭해진) 손끝을 보니 애뜻함이 느껴졌다.

第 51 回 1 級 : 筆記記述式問題の解答

(以下の解答はあくまでも正答の一例です。これ以外の答えも採点基準に沿うものであれば、正答とします)

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그렇게 놔두면 눅눅해져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떨어져요.

→そうやって置いておいたら、湿^{しけ}気ってサクサクした食感がなくなります。

2) 개가 여간 야무진 애가 아니라서 밀지는 장사는 안 할걸.

→あの子は本当に抜け目のない子だから、損す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はずよ。

3)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럴싸해서 깜빡 넘어갈 뻔했었어요.

→巷^{ちまた}に流れる噂が最もらしいので、うっかりだまされるどころでした。

4)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옆에서 부추긴다는 게 웬 말이야.

→止^とめるならまだしも、横^{あお}から煽るとは何事だ。

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. 답은 한 가지만을 한글로 쓰십시오.

<2 点×4 問>

1) しまったと思った時には、もう後の祭りだった。

→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.

2) 不意に「いいご身分ね」と言われ、呆れて二の句が継げませんでした。

→느닷없이 “신세 좋네”라는 말을 듣고 기가 차서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.

3) ドラマにすっかり気を取られてしまって、鍋が焦げ付くのも気付かなかったわ。

→드라마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냄비가 눌려 붙는 것도 몰랐네.

4) 照りつける真昼の日差しに、背中が真っ黒に焼けてしまいました。

→내리쬐는 한낮의 햇볕에 등이 새카맣게 타 버렸어요.